

제목	국문	중환자실 병원감염 실태조사			
	영문	Nosocomial Urinary Tract Infection Surveillance in a Intensive Care Unit			
저자 및 소속	국문	엄상화, 김애리 <sup>1</sup> , 유병철, 김성준, 정귀원, 손혜숙, 이종태, 전진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sup>1</sup>			
	영문	Sang-Hwa Urm, Ae-Li Kim <sup>1</sup> , Byung-chul Yu, Sung-Jun Kim, Kui-Won Jeong, Hae-Sook Sohn, Jong-Tae Lee, Jin-Ho Chun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sup>1</sup>.</i>			
분야	역학 [전염성질환]	발표자	엄상화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b>1. 목적</b>					
병원감염이란 질병을 치료하고자 입원한 환자들이 입원 후 병원환경에서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입원기간의 연장, 진단 및 치료에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예방 가능한 병원 감염의 발생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중요한 보건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감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로 감염 발생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병원 감염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b>2. 방법</b>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 시내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실 후 48시간 이후부터 퇴실 후 48시간까지 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감염은 입원 당시 잠복기 또는 증상 발현이 없으나 입원 후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중환자실의 병원감염이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48시간 이후, 퇴실한지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감염으로 정의하였으며, 병원감염의 발생빈도는 100명의 입원환자 당 발생하는 병원감염의 수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정의를 기초로 요로 감염을 정의하였다.					
<b>3. 결과</b>					
중환자실의 요로감염 발생건수는 재원환자 1000명당 12.3건이었으며, 요로감염 발생률은 입원환자 100명당 6.13건이었다. 실제 발생률은 총 대상자 243명 중 26례로 10.7%이었다.					
요로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길수록, 도뇨유치를 한 경우, 도뇨유치 기간이 길수록, 의식 수준에 장애가 있을수록, 방광세척을 할수록, 두부손상을 받은 신경외과 환자에서 요로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b>4. 고찰</b>					
본 연구 결과 중환자실에 입원후 요로감염 발생률은 입원환자 100명당 6.13건이 발생하였고, 실제 발생률은 대상자 총 243명의 환자중 26례로서 10.7%이었다.					
요로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길수록, 도뇨를 유치한 경우와, 유치기간이 길수록, 의식수준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방광세척을 할수록, 마지막으로 두부손상을 받은 신경외과 환자일수록 감염발생에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중환자실의 요로감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침습적 수기를 최소화하고 일단 수기를 적용한 경우, 요로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1 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요로감염 발생률에 대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을 확대하여 조사할 것을 제언하고, 요로감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보편적인 조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